

고흥군, 청년·귀농귀촌인 ‘스마트 영농빌리지’ 준공

공공임대주택 60세대 공급으로 안정적 정주기반 마련



고흥 스마트 영농 빌리지 내부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0일 옛 고흥초등학교(고흥읍 호산로 526) 부지에 조성한 6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스마트 영농 빌리지’를 준공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김민열 고흥군의회 의장 및 의원, 박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귀농·귀촌협의회 회원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스마트 영농 빌리지’는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정주기반 확충과 청년 및 귀농·귀촌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 사업에는 2024년도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확보한 기금 64억 원과 기타 기금 11억 9천만 원, 군비 3억 5천만 원으로 총 79억 4천만 원이 투입됐다.

/이유빈 기자

보성 한반도 최초 조각류 공룡 골격, 천연기념물 지정!

보성군은 지난 4일 득량면 비봉리에서 발견된 「보성 조각류 공룡(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골격화석」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화석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조각류 공룡 골격화석이다. 산출 장소와 발굴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된 국내 유일 공룡 골격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각류는 ‘새와 유사한 발을 가진 공룡’이라는 뜻으로, 오리주둥이공룡 등이 포함된 초식 공룡 분류군이다.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는 후기 백악기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의 생태와 진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다.

해당 화석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천연기념물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학술조사 과정에서 발굴됐다. 이번 지정으로 보성의 공룡 화석 연구와 보존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치매환자 가출·실종 걱정 덜어드립니다

해남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실종 예방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해남군보건소는 9월 30일까지 치매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스마트태그 등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관리 요령을 다시 안내하는 한편 즉각적인 A/S 등 맞춤형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가족 간 왕래와 외출이 늘어나는 만큼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가족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해남군보건소는 외출 시 보호자 동행, 연락처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함께 안내하고, 치매환자의 실종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종 예방과 안전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욱 기자

㈜빛글, 진도군에 엘이디(LED)조명등 1,071개 기탁

진도군은 9월 10일 ㈜빛글(대표 노지호)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생활안전 개선을 위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 1,071개를 기탁받았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이웃사랑 행복나눔’의 하나로 마련됐다.

‘㈜빛글’이 기탁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은 읍면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읍면에 배분해, 조명 교체가 필요한 경로당과 가구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조명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조명 교체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요금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가영 기자

장흥, 가을 웰니스 여행으로 몸과 마음 휴식

장흥군이 자연과 전통, 치유 자원을 활용한 가을 웰니스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는 편백숲을 걸으며 휴식을 취하고,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다.

또 장흥의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을 즐기며 여유를 느끼고, 힐링테라피센터에서 아로마테라피를 체험하며 심신을 이완할 수 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치유 자원을 연계해 머무르며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웰니스 관광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자연과 치유 자원을 갖춘 장흥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을철 자연 속에서 여유와 치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장흥의 매력에 기대된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기관·단체 합동 ‘추석 선물은 전복’ 캠페인 전개

군, 의회,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농협 등 동참



‘추석 선물 전복’ 캠페인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9월 10일 오전 8시 30분 완도 빙그레공원에서 완도군의회, 완도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완도소방서, 완도교육지원청, 농협완도군지부, 완도농업협동조합,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 관내 전복 생산·유통·수출 단체와 함께 ‘추석 선물은 완도 전복’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일회성 소비 장려를 넘어 관내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어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참석한 기관·사회단체장과 관계자들은 피켓을 들고 공원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추석 선물은 완도 전복으로!’를 홍보했다.

군은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관·단

체와 함께 ▲‘추석에는 전복으로 선물하기’ 임직원 자발적 동참 ▲관외 연고지 및 유관 단체 대상 전복 구매 협조 요청 ▲기관 주관 행사 시 전복 식품 홍보 등을 통해 추후 전복 대량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신 군수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시름이 깊은 전복 어가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기관·사회단체에 감사드린다”면서 “소중한 분들에게 최고의 보양식인 전복으로 마음을 전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군은 9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직거래 장터와 자매결연 도시를 찾아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촉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레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